

테마칼럼

다문화시대

미래의 광안

경제논평

광안칼럼

남북 경제협력에서 유념할 것



조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냉정한 경제적 타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국민들이 크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 행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대통령이 혹시 말실수나 하지 않을까, 갑담지도 못할 퍼주기 약속이나 하지 않을까 등등,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통령의 방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을 덜고 방북 성과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북핵 해결 없는 경험은 불가능

남북 정상의 만남을 위해 남쪽의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가는 장면을 인상 깊게 바라보면서, 필자는 그런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힘은 남북 북이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력이 그 발걸음을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정상선언의 내용도 흥미를 끈다. 선언문 전체에서 종전협정과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일지 모르겠다. 하여튼 필자에게는 이 두 가지 내용, 그 중에서도 경제협력에 관

한 내용이 더 큰 비중을 갖고 읽혀졌다. 여기에는 이른바 '민족모순'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생각, 즉 통일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달성해야 할 지상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남북정상선언에 담겨있는 경제협력의 내용은 남북 정상의 선언치고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서해안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구상은 정부의 신년도 예산안 목차 어디쯤에 있을 법한 그런 구체적 내용이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진정으로 평화정착에 공헌하고 남북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특히 남쪽이 유념해야 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이 북핵에 불모집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북핵 문제의 해결이 없는 어떤 평화체제, 어떤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남북 경제협력도 냉정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비용도

값싼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협상용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또 임기 중에 한정된 한두 건의 사업에는 용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진정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려 한다면, 다수의 경제협력 사업이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냉정한 경제적 타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협도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어떤 사업은 냉정한 경제논리를 적용하면 어떤 경제협력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한쪽의 이득이 다른 한쪽의 손실일 때, 그 세상이 제로섬 게임일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거래가 성립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별도의 정치적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계산하여 밝혀놓자. 정치적 비용을 경제적 손익과 뒤섞어서 경제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나아가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무안국제공항이 다음달 8일 개항한다. 무안공항은 승객 탑승 및 화물 적재 시스템 등을 시험가동하며 각종 시설 점검에 한창이다.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개항시기가 두 차례 연기된 점을 감안하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안공항 개항의 의미는 적지 않다. 무안공항은 서남권 물류 거점공항과 대동맥 및 동북아 전진기지로 도약할 꿈에 부풀어 있다. 인천공항 보조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프로젝트)와 기업도시 등 서남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광주공항과의 관계 정립이다. 건설교통부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와 관광업계 등 지역 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안공항에 취항 예정인 국제선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대거리 노선에 치우쳐

있는 것도 한계다.

열악한 접근성도 걸림돌이다. 건설중인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개항에 맞춰 무안-나주IC까지 27km만 개통된다. 나머지 나주IC-광주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건의했지만 건설교통부는 현 상태에선 부정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안공항은 '반쪽 개항'이 될 수밖에 없다. 광주공항 등을 제외한 상당수 국내공항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상되는 적자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초기 무안공항의 적자는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은 활성화돼야 한다. 지름길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국제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항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인프라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무안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관광산업도 中·日 샌드위치 신세라니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제조업처럼 일본과 중국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여행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및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관광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관광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어느 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숙박·편의시설·서비스 등 관광인프라와 품질경쟁력은 일본, 동남아, 한국, 중국이 순이었고 가격경쟁력은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의 순이었다. 관광자원 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앞섰고 한국은 꼴찌를 기록했다.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여행업체 95.1%가 관광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이라고 꼽았지만 한국관광의 미래가 유망하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했다. 외국인들은 특히 가격과 서비스, 숙박시설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미래산업'으로 불린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각국은 급성장하는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0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1.6% 늘었지만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12.6%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관광산업 진흥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형식에 그쳐 실질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제대로 된 특급호텔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앞섰고 한국은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관광업체들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본 큐슈(九州) 남단에 자리한 미야자키현(宮崎縣)은 수산업으로 유명하다.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미야자키 방어'는 수산대국 일본 내에서도 알아주는 고급 횡잡이다.

미야자키의 어업을 주도하는 곳은 '재배어센터'로, 우리로 말하자면 '수산양식장' 같은 기관이다. 이곳엔 '92년(平成 4년) 11월 吉日을 택해 건립했다'는 글귀가 새겨진 '魚藏'이라는 화강암 비(碑)가 세워져 있다. 검은색 빛돌반침엔 술잔 하나가 놓여 있는데, 사람들에게 잡혀 죽어간 물고기들의 넋을 위로하며 쟈술(祭酒)을 올리는 잔이다. 일본 왕도 이곳을 찾아 제를 지냈다고 할

라도 특산품인 흥어나 조기, 민어 따위를 염두에 두고 있던 어민들에겐 다소 의외였다.

여수시도 최근 시어(市魚)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어부와 어종(魚種)을 결정하고,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한다.

여수시민들이 불품 없는 '맛'을 해양 심벌로 선택할지, 아니면 전남도처럼 '때깔 있는' 고기를 내세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친숙하고 이로움을 준다든 점과 도시 이미지 메이킹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심벌조작(symbol manipulation)은 정치판에만 횡행(横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도처에 깔려 있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심벌 조작



의료 칼럼



신삼식

진선에 흰색의 뚜렷한 경계를 가진 반점이 나타나면 사회생활에 위축이 된다. 특히 가장 많은 경우가 백반증이다. 백반증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면서 흰 반점이 생기는 병이다.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후천적으로 ▲물리적 손상 ▲자외선에 의한 일광 화상 ▲임신과 출산 ▲수술 ▲사고 등의 질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백반증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0.5~2%에서 발병한다. 신생아부터 팔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의 입·코·눈 주위·손발·목·몸통 등 온몸 부위에서 백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며, 한두 개로 시작해 점점 주변으로 퍼진다. 반점 자체의 크기도 커지며, 때로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탈색되어 자라기도 한다.

백반증은 발생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좋지만, 방치할 경우 수십 년 혹은 평생 지속할 수 있다. 백반증은 단순히 피부 탈색증 외에 눈의 홍채와 망막의 색소이상을 동반할 수 있다.

백반증 치료는 환부의 크기나 모양·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바르는 광선요법·자외선 광선요법을 쓰는 광선요법·피부 표피 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료에 이용되므로 광범위하게 퍼진 경우에는 전신용 자외선치료가 적당하다. 백반증을 초기에 발견하려면 평소 피부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전에 없던 하얀 반점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일단 발병하면 무엇보다 자외선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하얗게 변한 백반증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잘 받아 능력이 없어 정상피부에 비해 일광화상을 쉽게 입고, 이는 다시 백반증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이 더 강해지면 모자·외출 소모·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백반증은 단기간에 치료하기 어렵고 최소 6개월~1년 혹은 그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 손·발·성기 끝 부분이나 깃털 등의 부위는 치료 효과가 늦고 치료도 힘든 편이다. 〈광안피부과 원장〉

백반증, 햇빛 피하세요

있지만 10~30세에 발병하는 일이 가장 많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30% 정도로 매우 높다.

백반증은 피부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의 입·코·눈 주위·손발·목·몸통 등 온몸 부위에서 백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며, 한두 개로 시작해 점점 주변으로 퍼진다. 반점 자체의 크기도 커지며, 때로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탈색되어 자라기도 한다.

백반증은 발생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좋지만, 방치할 경우 수십 년 혹은 평생 지속할 수 있다. 백반증은 단순히 피부 탈색증 외에 눈의 홍채와 망막의 색소이상을 동반할 수 있다.

백반증 치료는 환부의 크기나 모양·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바르는 광선요법·자외선 광선요법을 쓰는 광선요법·피부 표피 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어린이 대상 요금 적용 연령 통일 시켰으면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가족 동반 나들이가 많은데 어린 아동들을 대동하는 경우 요금 규정 연령이 크게 달라 혼란스럽다. 항공요금은 만 2세부터, 철도요금은 6세 이상, 놀이공원 입장료는 만 3세 이상부터 받는다.

고속버스 요금은 미취학 아동은 무료이고 초등학생부터는 할인 혜택을 받는 요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대상 요금징수에 대한 연령기준이 애매하고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객 운임과 유류료 입장료 등이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말다툼도 잦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어린이 대상 요금 적용연령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기고



조기종

광주에는 지방 무형문화재로 예능부문에 12명, 기능보유자 7명 등 모두 19명의 인간문화재가 문화수도 광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하여 장인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소에도 이런 장인들의 기능을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광주시의 문화정책에 감사하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수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하고 싶다.

관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전수관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다. 전수관은 인간문화재들로서는 학습고대하는 사람이자 문화수도 광주 시민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듣건대 광주시에서는 새로 지은 전수관을 광주의 외곽지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내 소견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구 도심에 지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고 있는 구 도청

광주 무형문화재전수관 구도심에 짓자

그것은 바로 수년전부터 뜻있는 인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광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각종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160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서울처럼 연면적 1만2천여㎡가 넘는 거창한 규모의 전수관도 있고 화순 한천농악 전수관처럼 300㎡ 정도의 아담한 전수관도 있다. 각 시도마다 적게는 5~6여곳, 많게는 20여곳 씩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이미 지어져 이곳에서 활발한 전수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광주에는 고사뭇풀이 전수관 한 곳만이 지어져 가동되고 있을 뿐 다양한 기능의 인간문화재들이 기량을 닦고 제자를 길러낼 종합 전수

관 분수대에서 구 광주은행 4거리 사이에 많은 건물들이 썰렁하게 제 구실을 못하고 공동화되어 있다.

적어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려면 전국에서 문화의 전당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장인들이 평생을 바쳐 빛낸 훌륭한 명품들을 둘러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건립하였으면 좋겠다.

이는 우리 장인들 모두의 소망이자 문화수도를 자처하는 우리 빛고를 주민들의 뜻에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감히 제안을 해본다.

광주시의 자상하고 친절함 행정 노력으로 종합 전수관이 지어진다면 외길을 일궈온 장인들이 소외감을 떨치고 신바람 속에서 창작과 전수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무형문화재협의회 회장〉

면세물품 구입한도액 10년째 400달러...현실성 없다

업무차 유럽 출장을 갔다 오면 길에 가족과 친척의 선물을 사면서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일주일간 외국에 머물다 양주·독일제 부엌칼·아이들 장난감·화용품들 선물로 구입한 뒤 가격을 보니 500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귀국 시 세관신고서에 쓰도록 하고 있는 물품 구입 한도액은 400달러다.

부탁받은 선물도 있고 명품을 산 것도 아닌데 400달러 한도를 지키기는 너무 어려웠지만 규정이라니 별수 없이 물건 1~2개를 뺐 수밖에 없었다.

해외여행을 가면 나름대로 쇼핑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들었다. 그저 업무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지만 여행객들의 면세물품 구입이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면세물품 한도를 400달러로 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는 지난 1996년 기준이라고 한다.

여행객들이 지금에 비해 훨씬 적었던 10년 전 기준을 여지껏 고수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차차 해외 여행을 나가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해외여행객 면세품 구입 한도액도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높게 해줄 필요가 있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